

# 해남군, 공동육아방 운영 가족친화 돌봄환경 조성

### 2021년 코아루 1호 육아나눔터 관내 4곳 운영 5700명 다녀가 육아방 돌봄 역량강화 교육 등 2027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실현

해남군이 공동육아방 운영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돌봄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관내 공동육아방 4개소를 운영해 가족친화 돌봄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11일 해남군에 따르면 공동육아방은 부모 등 보호자들이 품앗이 등을 통해 아이를 함께 돌보고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육아나눔 공간이다.

해남군에서는 지난 2021년 해남 코아루 아파트에 1호 공동육아나눔터가 조성된 이후 지난해 해남가족어울림센터가 개소하면서 센터내 3층에 2호점이 들어섰다.

섬지역인 어불도에 군비를 지원, 어불마을 경로당을 리모델링해 공동육아방이

설치됐으며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해남읍 구도심에 아이랑 사랑방이 조성됐다.

공동육아나눔터 1,2호점은 올해 상반기에만 돌봄과 육아 품앗이, 상시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5700여명이 육아나눔터를 이용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5월 코아루 아파트 1호점에서 열린 달란트 시장잔치와 아나바다 잔치는 경로당 어르신과 아파트 입주주민들까지 함께하며 지극히 볼 수 없었던 육아 공동체의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상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가족어울림센터 내 2호 육아나눔터와 섬 지역의 특성상 어린이집이 없는 환경에서 젊은 엄마들이 공동육아를 실시하고 있는 어불마을 공동육아방, 전통시장과 인접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읍 중심지에 들어선 아이랑 사랑방도 특색에 맞는 공동육아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있어 이용

자들의 만족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어불공동육아방은 유아부와 초등부를 나누어 학부모 회원들이 10여명의 자녀들을 공동으로 돌보면서 한글수업과 독서활동, 체육활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아이랑 사랑방 또한 영유아 돌봄놀이터와 그래픽 도서관 등을 갖추고 올 상반기 동안 돌봄 86명, 프로그램 참여 417명 등 매우 높은 참여율로 구도심의 돌봄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군은 공동육아방 운영이 가족친화 돌봄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해남군이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의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남군은 2022년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되어 2023~2027년까지 5년동안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인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

량 강화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을 구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과 생활 속 불편사항 모니터링, 의견수렴 등을 실시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 실행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30일 공동육아방 종사자 간담회를 열어 육아방 운영 현황 등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앞으로 육아방 운영진에 대한 돌봄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할 예정으로 가족친화 돌봄환경 구축을 통해 군이 추진중인 여성친화도시의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아이 한명을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공동육아방을 통한 가족친화 돌봄환경 조성은 지역 돌봄 공동체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돌봄 역량강화를 통해 더 나은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 ‘뽕뽕’ 토요 먹거리장터 열린다 신안군 지도읍

신안군 지도읍에서 ‘뽕뽕’ 토요 먹거리 장터가 열린다.

11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도읍과 증도면 임자도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도 첫 갈타운 일원에서 뽕뽕 토요 먹거리 장터를 오는 24일 시범·운영한다.

하나의 섬에 미술관, 박물관, 정원을 조성하는 1섬1뮤지엄, 1섬1정원화 사업과 함께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활짝 열 것으로 기대된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사계절 꽃과 나무가 흐드러진 북부권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활용한 먹거리를 제공해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뽕뽕 토요 먹거리 장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특산물 판매장 운영과 먹거리 장터, 난타, 장고, 색소폰 공연, 장기자랑, 경품추첨 등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선 보인다.

‘뽕뽕 토요 먹거리 장터가 열리는 ‘신안 첫갈타운’은 첫갈의 유통과 홍보, 관광객 편의를 위해 지난 2015년 개장했다.

수산물 판매장 20개소가 영업중으로, 첫갈 저장과 숙성을 위한 저온저장시설 및 전시·홍보관 등을 갖췄다. 첫갈타운 인근 거북섬 탐방로는 또 다른 볼거리 중 하나다.

군은 최근 갯벌의 환경적 가치와 보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첫갈타운과 연계해 관광지로 개발했다.

해상 443m를 잇는 목교와 거북섬 407m의 탐방로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쉼을 얻기 제격이다.

신안=홍일갑 기자

### 도담도담 작은 도서관 문 열어 완도군, 신간 도서 지원 등

완도군은 지난 7일 ‘도담도담 작은 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개관식은 사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관사, 사업 추진 경과보고, 축하 공연, 테이프 커팅식 등이 진행됐다.

개관식에는 신우철 군수와 김양훈 군의회 의장, 김정선 완도교육지원청장, 장범수 KB국민은행 호남1지역 본부장, 김수연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대표 및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도담도담 작은 도서관’은 완도 생활문화센터 내에 자리하고 있으며 ‘KB 후원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KB국민은행으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사업비를 후원받아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도서관에는 원목 서가 및 책상, PC, 에어컨 등이 설치됐으며 신간 도서 지원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독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완도=정태영 기자

### 해남군, 전국 최초 ‘영상 시’ 공모 시문학의 고장 위상 제고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에서 전국 최초 ‘영상 시’를 콘텐츠로 한 공모전을 추진한다.

11일 해남군에 따르면 ‘영상 시’는 작품을 재해석해 영상으로 표현한 작품을 말한다. 해남 출신의 모든 시인들의 작품 중 한 편을 골라 시에 드러난 이미지, 은유, 감각, 감정, 상상력 등을 영상으로 연출 및 재해석한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극영화, 다큐,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브이로그 등 장르의 제한은 없으나 단작가명과 시 원문, 출처는 반드시 자막으로 표기해야 한다.

오는 9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응모할 수 있으며 관심있는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출품 요강 확인 후 신청서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lee181020@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주제 적합성과 창의성, 완성도, 활용 가능성 등 심사항목에 의거하여 전문가 심사 후 총 8명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총상금은 1000만원 상당이다.

해남=전연수 기자



무안군 관계자가 관내 한 음식점에서 식중독 점검을 하고 있다. 무안군은 뽕뽕지거리 음식점을 비롯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재료를 취급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활동을 펼친다. 무안군 제공

### 무안군, 여름철 식중독 예방 맞춤 컨설팅

무안군이 무안뽕뽕지거리 음식점을 비롯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육화·생선회·김밥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50여 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한다.

11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컨설팅에서는 보건소 식품위생감시원이 음식점을

방문하여 위생 상태와 세균 오염 가능성 등 사전 진단과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공한다. 또한 식중독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주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전 진단은 △중증사자 건강진단(개인 위생) △위생교육 수료 △어류·육류 및 채소류 작업 시 칼, 도마 구분사용(조리

도구) △충분한 가열 온도 및 시간 △식재료 구분 보관, 냉장고 청결 및 적정 온도 유지(보관과정) △조리시설 파손 여부 및 청결 관리(조리장) 등으로 세분화하여 진행한다.

식중독 간이세균측정기(ATP측정기)를 활용해 칼·도마, 종사자 손 등 오염도를 측정하여 식중독에 대한 종업원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무안=김행연 기자

### 신안군, 하의도 김대중 대통령 생가 전남도 문화유산 지정

####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신안군은 하의도에 위치한 ‘신안 김대중 대통령 생가(新安 金大中 大統領 生家)’가 지난 1일 전남도 지정 문화유산(기념물)으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신안 김대중 대통령 생가’는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1924~2009)이 하의보통학교(4년제)를 다니다가 1936년 목포로 이사 가기 전까지 어린 시절을 보내며 성장했던 곳이다. 생가는 1933년 목조 초가로 건립되어 1970년대에 하의면 어은리로 이설되었다가 건립 당시 주요 자재들로 1999년 현 위치에 복원했다.

생가는 김대중 대통령이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며 인권, 평화의 정신을 키워나갔던 공간이었으며 모방, 정지, 안방,

마래로 이어지는 섬 지역 전통민가의 특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문화유산 지정 가치를 인정받았다.

신안군은 1999년에 복원된 생가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향토유산으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초기이영 교체, 주변 정비 등을 지속해 왔다. 대통령의 서거 이후 추모관 건립, 하의도 노벨평화공원 조성, 다양한 추모행사 등을 통해 그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2020년부터 남북평화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기리고 보전하기 위해 하의도에 ‘한반도 평화의 숲’을 조성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의 숲은 하의도의 남(큰바위얼굴)과 북(김대중 대통령 생가)을 연결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과 유년기

를 추억하고 고통을 이겨내며 남과 북을 아우르는 대통령의 인동초 정신을 기리기 위한 숲길 조성 및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후광평화광장 및 기억의 숲길, 큰바위얼굴 오션뷰, 난대림 복원 등이 완료되었으며 2025년에 대한민국 정치역사 아카이브홀(후광기념관)이 개관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와 정신의 출발점이 된 생가의 보존,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한편 대한민국 정치역사 아카이브홀, 한반도 평화의 숲 등과 연계해 세계적인 평화의 성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신안=홍일갑 기자

### 멸종위기 2급 ‘참달팽이’ 18마리 신안 흑산 하태도 방사

신안군은 국립생태원과 공동으로 국립생태원 연구시설에서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참달팽이 18마리를 흑산면 하태도 원서식지에 방사했다고 11일 밝혔다.

하태도는 신안군 흑산면 태도리에 속하고 목포에서 남서쪽으로 약 120km 정도 떨어져 있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2018년 흉도에서 도입한 참달팽이 5개체를 통해 국내 최초로 기초생활사를 규명하고 인공증식에 성공했다. 이후 2022년 흉도와 2023년 하태도에 두 차례 자연 방사했다.

이번 방사에서는 지난해 방사 후 추가로 증식된 건강한 준성체 18마리를 선별해 이뤄졌다.

방사된 참달팽이는 민가 인근 산지 초입에 방사되고 방사 개체에 식별 번호표를 부착해 생존율, 성장률 등 자연 적응성을 파악한다.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주변 서식지 위협요인의 활동을 조사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방사는 주민인식 증진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진행됐다.

하태도 주민과 탐방객에게는 참달팽이 소책자를 배포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전 중요성을 홍보했다. 소책자에는 참달팽이의 기본정보 및 유사종과의 비교 그림 등이 사진 형식으로 제공된다.

신안=홍일갑 기자